



한잔 술에 자치복권 1억원 당첨이라는 행운을!

술한잔만 먹으면 한 뭉치씩 복권을 사오는 조묘(경기도 수원 40)씨 제42회차 자치복권 1등 1억원에 당첨되고 나서 첫마디는 『1억원 당첨복권 있긴 정말 있네』 였다.

가끔가다 신문에 나는 고액 복권 당첨자를 보면 ‘사실일까’라는 의문이 먼저 드는 회사원 조씨. 그도 그럴 것이 광적인 복권매니아는 아니지만 술을 먹기만 하면 항상 몇 만원씩 복권을 사 보지만 한 번도 5천원 당첨을 넘은 경험이 없다. ‘정말 1등 당첨복권이 찍혀 나오기는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 많이 사면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다던데 보너스조차 당첨되지 않으니 어느 때는 자신이 왜 복권을 사는지 모를 정도이다. 그럼에도 그는 꾸준히 한 번씩 두툼한 즉석복권 뭉치를 들고 왔다.

이제는 아내도 만성이 돼 술 먹고 늦게 들어 온 날은 같이 복권을 긁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남편은 술김에라도 긁지만 맨 정신에 그 많은 것을 긁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날 역시 조씨는 회식을 하고 누런 종이 봉투에 복권을 넣어 왔다. 60여장이나 되는 복권이 들어 있었고 부부는 열심히 복권을 긁기 시작했다. 조씨는

술이 과했는지 굵는 속도가 느린 반면 이제는 굵는데 선수가 다 된 부인은 재빠른 손놀림으로 5백원 당첨 복권과 낙첨복권을 척척 분리해 가면서 긁었다. 그런데 행운의 1억원 당첨복권은 남편이 굵은 복권에서 나왔다.

조씨가 흐릿한 눈으로 굵은 복권을 들고 자꾸 확인하고 또 하는 모습이 보여 부인이 ‘5백원이라도 당첨됐나?’ 생각하며 남편 손에 들린 복권을 빼앗아 확인해보니 5백원이 아닌 1억원에 당첨된 것이었다. 조씨가 “맞아?”하며 묻자 부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 조씨는 크게 웃으며 “이야, 정말 1등 당첨복권이 있네!”라며 방안을 데굴데굴 굴렀다.

“정신을 차리고 차분한 마음이 되니 이제는 정말 이 복권을 가져가면 돈으로 바꿔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조씨 부부는 그 다음 날 나란히 은행에 찾아가 당첨 복권임을 확인받고 당첨금이 든 통장을 손에 쥐고 나왔다.